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별 공간 분포 특성에 따른 문화지역 분석*

정근비** · 장동호***

Analyzing Cultural Regions by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Instruments Used in the Funeral Songs in Bu-Ul-Gyeong Region*

Geun-Bi Jeong** · 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되는 악기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문화지역을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는 총 3개이며, 악기 없이 부르는 상부소리 유형을 포함하여 소리 문화 지역을 총 4개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북부평야지역은 주로 낙동강과 그 지류인 황강 유역의 연속된 평야지역을 따라 상부소리에 북을 주로 치는 지역이 다수 분포한다. 서부산지지역은 평경을 사용하는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백산맥 일대의 거창, 함양, 산청, 하동에서 나타났다. 동부산간 및 해안지역은 악기 없이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이 분포하며, 일부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북을 사용하여 부르는 지역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부 및 남부해안지역은 주로 쟁쇠를 치며 부르는 지역이 분포하며, 일부 낙동강 일대와 가화천 일대에서는 북과 평경을 이용하여 부르는 지역이 나타났다.
주요어 : 상부소리, 소리 문화, 부·울·경 지역, 문화지역, 공간 분포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used in the funeral songs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nam-do (abbreviated as Bu-Ul-Gyeong) to classify cultural regions. As a result, a total of three funeral songs were used in the funeral songs of the Bu-Ul-Gyeong region, and a total of four sound culture regions were categorized, including the type of the funeral songs sung without musical instruments. In detail, the northern plains region is mainly distributed along the continuous plains of the Nakdong river and its tributary, the Hwang river basin, a large number of areas where drums are mainly used for the funeral songs. The western mountainous region is characterized by the Pingkyung culture, found in Geochang, Hamyang, Sancheong, and Hadong in the Sobaek mountains. The eastern intermontane and coastal region is characterized by the singing of the funeral songs without instruments, with some areas along the banks of the Nakdong river using drums. Finally,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are mainly characterized by the use of the Kkwaenggwari, with some areas along the Nakdong river and Gahwacheon using the drum and Pingkyung.

Key Words : The funeral songs, Sound culture, Bu-Ul-Gyeong region, Cultural area, Spatial distribution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72).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jkb8996@mail.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I. 서론

상부소리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장례 요이며, 의식요적 성격을 띤다. 또한, 여럿이서 함께 무거운 상여를 둘러메고 장지까지 옮기거나, 땅을 다지면서 합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노동요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김승은·장윤희, 2023). 이처럼 상부소리는 장례 의식의 주요 구성 요소로, 망자를 위로하고 상여꾼들의 노동을 돕는 동시에 지역 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상부소리는 죽음에 대한 의식과 애도의 정서를 노래로 표현하여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드러내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에 상부소리는 지역별로 가창법, 구조, 악기 구성, 명칭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서, 역사적 전통이 반영된 결과이다(김정호·문범두, 2013; 김승은·장윤희, 2023).

상부소리는 전문 소리꾼을 불러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다른 지역의 소리가 전파되어 불리는 변화도 있고, 마을 간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변화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임미선, 2012). 이 소리는 지역별로 다양한 가창법과 노랫말이 있으며, 해당 지역 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있어 지역적 차이가 잘 드러나는 문화요소이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상부소리를 가창할 때 활용하는 악기가 각각 다른 것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상부소리에서는 북과 징이 주로 사용되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부소리에 팽과리, 장구 등의 타악기가 사용되었다(전라남도지도편찬위원회, 1995; 경기문화재단, 2017). 전라도 지역의 상부소리에 타악기가 사용된 것은 농악 문화가 영향을 미쳐 농요에 주로 쓰이는 악기가 활용된 것이다. 이처럼 상부소리에 사용되는 악기는 지역의 고유문화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이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부소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민요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민요학계에서는 주로 민요의 특성과 문화권에 관하여 분석되었다. 민요학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해식(2005)은 상부소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김정호·문범두(2013)는 남해군의 장례문화와 상부소리를 통해 남

해 지역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상부소리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관계, 삶과 죽음의 이해, 그리고 장례문화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옥희(2020)는 2000년대 이후에도 존재하는 광주 상부소리를 대상으로, 마을 의례공동체 전승, 민간 전문 연희단체 전승, 지자체 전승 등의 3가지 전승주체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전승주체의 유형별로 상부소리 연행과 전승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민요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리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을 분류하고, 해당 지역의 공간 분포 특성을 깊이 있게 조사한다. 장동호·이소라(2015)는 충남 지역의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세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사회·문화·역사가 지역성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윤혜연 등(2020)은 경남 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지리적 공간 분포를 조사하고, 소리 전파 패턴을 선구조, 곡저 평야 등 지형 요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김장수·장동호(2021)는 논매기소리의 분포 특성과 전남 지역의 문화지역 구분을 네 가지 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역사 문화 및 생활권 등 기존 문화권을 바탕으로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문화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분된 문화지역과 논매기소리의 분포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장동호·임은진, 2022; 정근비 등, 2023).

국외 연구로는 Prelovsek(2021)는 슬로베니아 해안지역의 장례식 음악 관행을 설명하고, 현대의 장례 의식이 지중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음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남부의 장례 음악 전통과 슬로베니아 해안지역의 장례 음악 전통을 비교하며, 이를 통해 지중해가 슬로베니아 해안지역의 장례 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증명하였다. Hanser *et al.*(2023)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영국의 장례 음악의 기능, 심리적 영향, 특징을 분석하고 Spotify를 활용하여 각국의 장례 음악과 인기 음악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악기 사용 특성 차이점을 말하며 장례 음악의 음조 및 오디오적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 국가 모두 기독교

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각 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어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장례 음악의 음악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징을 구분하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보면, 민요는 지역의 문화지역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리학계에서 진행된 향토민요 연구는 논매기, 김매기와 같은 노동요를 대상으로 노동요의 전파 및 공간분포 특성, 문화지역 구분 등을 다루었다. 하지만, 상부소리와 같은 의식요는 하나의 문화요소로서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 구분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의식요인 상부소리의 지역적 특색을 분석하고 지리적 요소에 의한 전파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부소리에 사용되는 악기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악기 유형별 문화지역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를 통해

문화권 구분 및 분포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문화 요소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상부소리의 지역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요의 다양성과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인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지역은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서쪽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남쪽은 남해, 북쪽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접하고 있다(그림 1).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35'~129°28', 북위 34°39'~35°54'이며, 동서의 길이가 남북 길이보다 다소 긴 형상을 하고 있다. 부·울·경의 총면적은 약 12,364km²로서, 남한의 총면적에 해당하는 100,283km²의 약 10.5% 정도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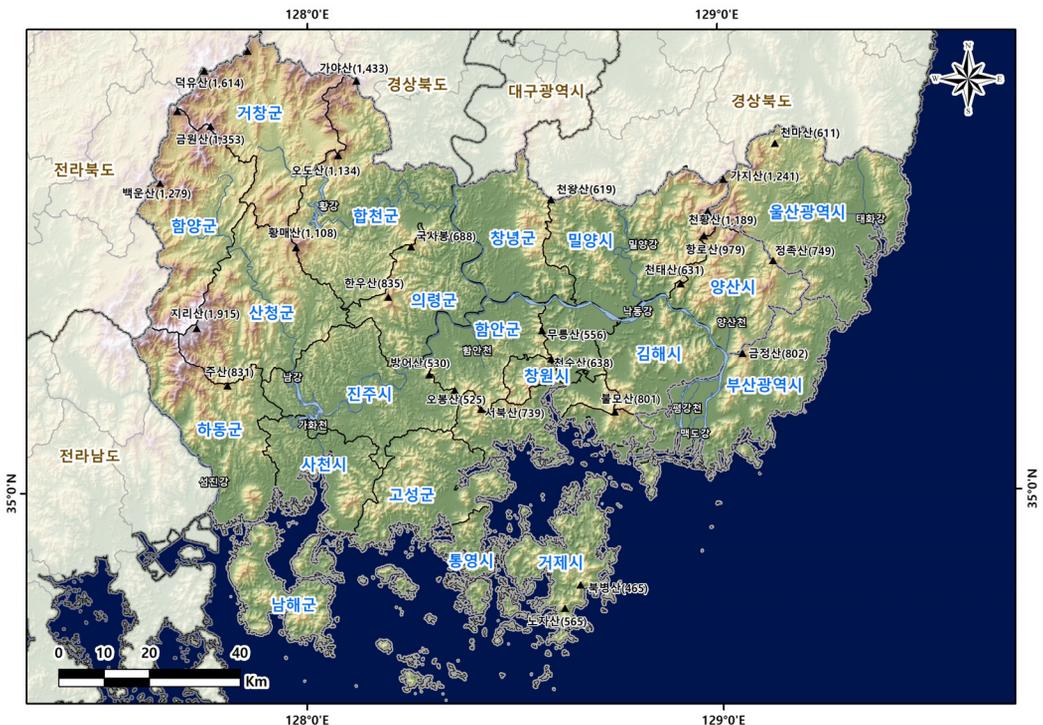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도

경상남도는 전체적으로 동쪽 방면의 태백산맥과 그로부터 뻗어 나온 서쪽 방면의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써 침식분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다. 산맥들의 주향이 대체로 일정하지 않으며, 서부 지역은 소백산맥과 그 지맥들이 주로 서부와 북동부로 뻗어 산지를 이루고, 동부지역은 태백산맥의 지맥들이 위치하여 산지를 이룬다. 중앙부는 산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낙동강과 그 지류인 남강·황강·밀양강·양산천 등이 위치하여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저지를 이루고 있다. 경상남도의 산지지역은 지형학적으로 크게 서부소백산지, 구릉성 산지, 동부태백산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서부소백산지를 이루는 주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덕유산(1,614m)·남덕유산(1,503m)·대덕산(1,290m)·백운산(1,279m) 등이 있다. 구릉성 산지는 저굴산(897m), 오봉산(524m), 월아산(482m), 와룡산(798m) 등이 위치하며, 동부태백산지에는 가시산(1,240m), 신불산(1,209m), 천황산(1,189m), 운문산(1,118m) 등이 분포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본 연구에서는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사용되는 악기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악기 유형별 문화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울·경 지역의 문화지역 구분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윤혜연 등, 2020). 이후 부·울·경 지역의 문화·생활권 등을 기반으로 하여 지형 요소와 행정구역 분석을 통해 상부소리 문화권을 총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부·울·경 지역 녹음지역 117개의 주소를 경·위도 형식의 GIS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각 악기 유형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상부소리 전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산맥과 수계 등 지형적 성격을 반영한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과 하계망도 등을 제작 및 활용하여 부·울·경 지역의 전반적인 자연 지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구축된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 유형별 자료와 지형요소를 활용하여 각 시·군을 대표하면서 문화지역별 분포 특성이 악기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리 문화의 문화지역 구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부·울·경 지역의 소리 문화 지역을 구분하였다.

III. 부·울·경 지역의 문화지역 구분 및 악기별 공간 분포

1. 부·울·경 지역의 문화지역 구분

지역은 자연환경 요소들과 인문환경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고유한 성격을 나타내며, 자연환경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요소에는 지세와 기후가 있으며, 방언은 종교와 같이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온 역사를 반영하는 인문환경 요소이다. 지역 간 경계를 이루는 행정구역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공간을 결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질감을 고취한다(이기태, 2010).

기존에 진행된 연구 중, 경상남도 지역 구분의 지리·농업 및 생활권 구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부 국립지리원(1985)은 경상남도의 자연환경 특성에 따라 지역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북서부 산지 지역은 호남지역과 경계를 이루며, 소백산맥의 동사면에 위치하여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 등 험준한 산지와 계곡 및 좁은 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벽으로 인해 예로부터 두 지역 간의 인문·문화적 교류의 장애가 되기도 했으나, 일부 낮은 안부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중앙내륙분지 및 평야지역은 낙동강과 그 지류들이 형성한 비교적 넓은 내륙분지 및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남의 주요 곡창 지대를 형성한다. 김해평야와 같은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어, 농업 생산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부산간 및 해안지역은 태백산맥의 말단에 해당하며, 동해안의 해안평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북방향의 산지 및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단층운동에 의해 형성된 구조산지로서, 경주·양산, 청도·밀양, 울산·부산 등 남북 간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곡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부해안 및 도서지역은 해안가 및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이 많고, 해양적인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또한, 건설부 국립지리원(1985)은 농업환경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을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기준은 경지율과 논의 비율을 통해 농업지역을 구분하였다. 경지율이 20% 미만이면 산간지대, 20~30%이면 준평야지대,



그림 2. 경상남도 자연환경에 따른 구분도

출처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30%이상이면 평야지대로 구분된다. 논의 비율이 40% 미만이면 경작지대, 40~70%이면 혼작지대, 70% 이상은 답작지대로 구분한다.

산간지대에는 북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거제군(현 거제시)이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경지율이 20% 미만이며, 주로 험준한 산지와 좁은 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서부 산지 지역은 소백산맥의 동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한다. 동부 산간지역은 태백산맥의 말단에 해당하며, 남북방향으로 뻗은 산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야지대에는 낙동강 및 남강 유역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경지율이 30% 이상이며, 비교적 넓은 내륙분지 및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김해평야와 같은 주요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경남의 곡창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준평야지역은 경지율이 20~3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및 그 지류들의 중상류와 남해안지역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점이지대로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그림 3).

더불어, 건설부 국립지리원(1985)은 경상남도 지역을 생활권에 따라 구분하였다.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생활정착권은 총 7개로 구분되었다(그림 4). 각 권역별로 중심도시와 배후지를 결속시키는 지역정주체계로서, 부산중심의 대도시 생활권을 세분하여 부산권, 울산권, 부산배후권, 거제권(충무지역) 등 4개 지역과, 진주중심의 지방도시 생활권을 분리시킨 진주권, 창원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농복도시 생활권을 세분화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부산광역시(기장군 포함), 울산지역은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 창원지역은 창원시(마산, 진해, 의창 포함),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충무지역은 통영시(충무 포함), 거제시, 고성군, 그리고 진주지역(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윤혜연 등(2020)은 논매기소리를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소리 문화권을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5). 서부 산지지역은 모노레 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높은 산지가 위치하고 있는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등의 경남 북서부지역이다. 중부 평야 및 구릉지역은 궁굴레 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궁굴레 류는 의령·창녕·합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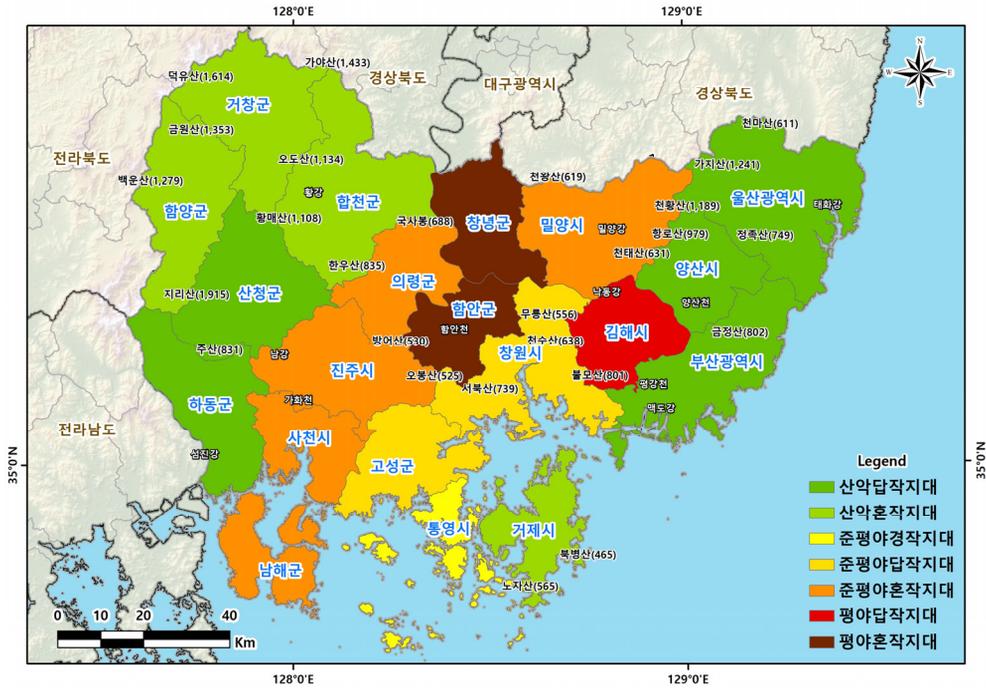


그림 3. 경북·울·경 지역 농업지역에 따른 구분도

출처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그림 4. 부·울·경 지역 생활권에 따른 구분도

출처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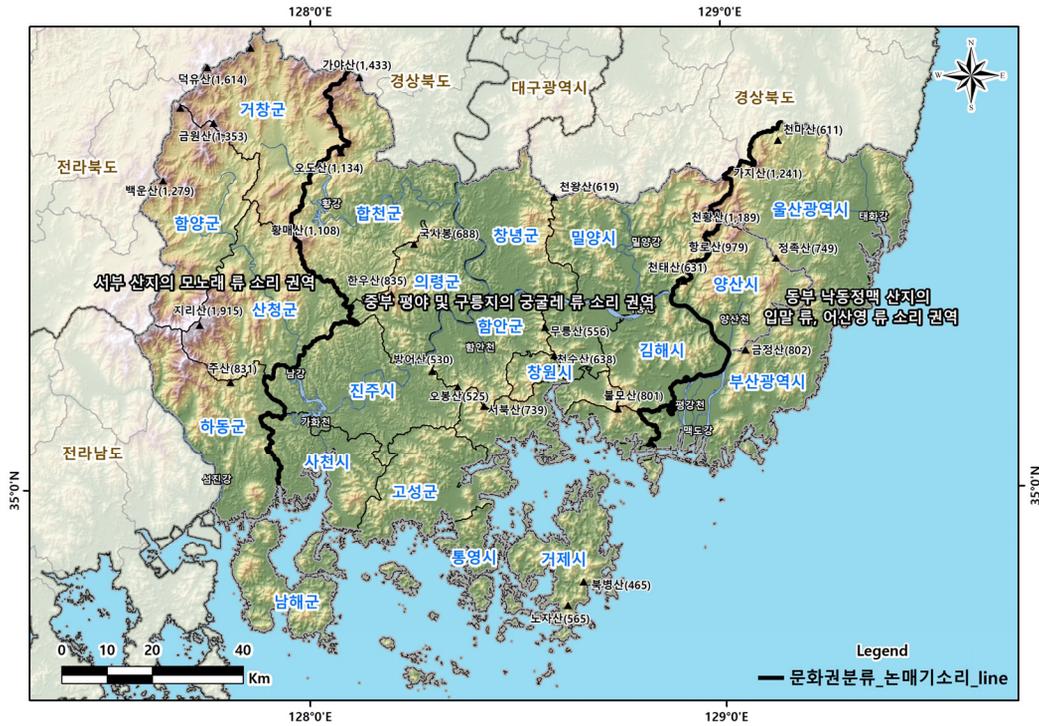


그림 5. 부·울·경 지역 논매기소리 유형에 따른 구분도

출처 : 윤혜연 등, 2022

포하고 있다. 동부 낙동정맥 산지지역은 입말 류와 어산영 류가 문화중심이 되는 지역이며, 울산·양산·부산 일대가 해당된다. 또한, 인접 시군인 밀양과 창원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2.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별 공간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악기는 쟁쇠(쟁과리)소리이며, 117개 지역 중 50개(42.7%)지역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36개), 평경(19개) 순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악기 없이 불리는 지역은 12개이다(표 1, 그림 6).

부·울·경 지역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악기인 쟁쇠는 이 지역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악기이다. 쟁쇠를 사용한 지역은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등 주로 낙동강 서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강 일대에 분포한다. 쟁쇠를 사용한 이들 지역의 상부소리는 주로 오르막, 두

마디 넘차 류, 어름소리가 다수 불리어진다. 이 소리는 주로 낙동강 서안과 남강의 충적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쇠의 분포 양상으로 보아 남강 일대가 문화 중심지일 가능성이 크며, 이곳을 중심으로 남강의 하계망과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는 남부 해안지역 및 낙동강 서안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거제시, 통영시와 같이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서 쟁쇠의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 뱃길을 통해 상부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다음으로, 북은 전국적으로 상부소리를 부를 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이다. 상부소리에 북을 사용하는 지역은 김해시에서 함천군에 이르는 낙동강 일대 경상남도 중북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북을 사용하여 두마디 넘차 류, 오르막, 어름소리가 다수 불리어졌다. 북을 이용한 상부소리는 김해시와 창원시, 의령군 등 낙동강을 넘어 낙동강의 주요 지류를 따라 서안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전체적인 분포 양상으로 보아 낙동강 중하류 우안 지역인 밀양시와 창녕군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충적평야를 따라 양산시와 김해시, 창원시에 전파된

표 1. 부·울·경 지역 악기 유형별 지역 개수

악기 유형	지역 개수(%)
쟁쇠	50(42.7)
북	36(30.7)
핑경	19(16.2)
악기 없음	12(10.3)
계	11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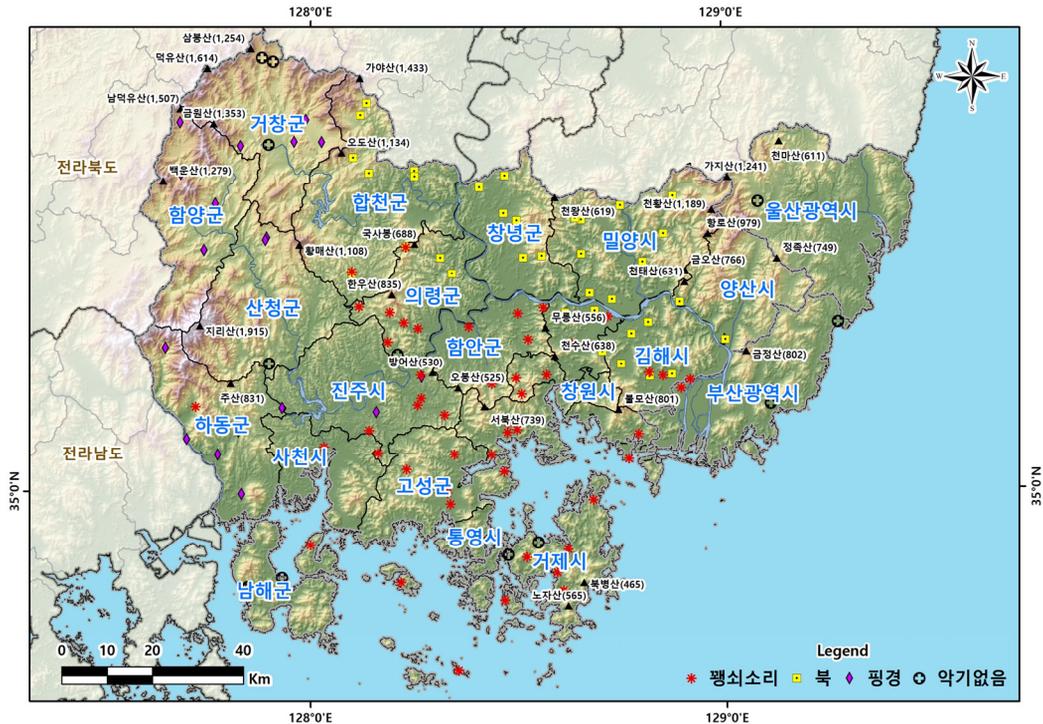


그림 6. 부·울·경 지역 악기 유형별 공간 분포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핑경(풍경, 風磬)을 이용한 지역은 부·울·경 지역 북서부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핑경을 이용한 지역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과 황강의 최상류 부에 해당하며, 비교적 높은 산지 사이에 형성된 곡지평야에 위치하며 연속된 형태를 나타낸다. 핑경을 이용하여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산지의 비율이 높아 소리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고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부소리 유형 중 오르막과 두마디 넘차 류 등이 핑경을 이용하여 주로 불렀다(그림 6).

악기 없이 상부소리가 불린 지역은 모든 지역에 걸쳐 나타나며, 특별한 분포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그림 6).

하지만, 해안지역 및 북부 및 중부 산악지대에서 일부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부소리 유형 중 평길 운상과 오르막이 악기 없이 다수 불리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의 문화지역별 공간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울·경 지역 지역의 문화지역별로 나타난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악기 유형은 쟁쇠, 북, 핑경, 악기 없음이며, 이들 악기 유형을 통해 진행된 상부소리를 대상으로

총 4개의 문화지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7).

북부평야지역은 상부소리에 북을 주로 치는 지역이 다수 분포한다. 북부 평야지역은 주로 낙동강과 그 지류인 황강 유역의 충적평야와 산지곡저평야를 따라 나타난다. 연속된 평야지역을 따라 해당 악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건설부 국토지리원(1985)에 따르면 농업지대 구분에서 혼작지대와 답작지대에 속한다. 북은 농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악기로, 상부소리에서 북이 사용된 것은 평야지대의 농업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부산지지역에서는 핑경을 사용하는 지역이 우점하고 있으며, 악기없이 부르는 지역과 쟁쇠를 이용하는 지역이 일부 분포한다. 이 지역은 윤혜연 등(2020)이 논매기소리 유형으로 구분한 지역 구분 중 서부 산지의 모노래 류 소리 권역과 일치하였으며, 건설부 국립지리원(1985)가 농업지역으로 구분한 문화권에서는 산악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부산지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와 접하고 있어 산지곡저평야를 통하거나 이주민 등을 통해 핑경을 사용하는 문화가 전파된 것이다. 이 문화지역은 산지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해당

지역에만 문화가 고립된 결과이다.

동부산간 및 해안지역은 악기 없이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이 분포하며,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북을 사용하여 부르는 지역이 나타났다. 이 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천황산(天皇山, 1,189m), 가지산(加智山, 1,241m) 등 높고 험준한 산맥에 의하여 북을 사용하여 부르는 문화가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부 및 남부해안지역에는 쟁쇠를 치며 부르는 지역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낙동강 일대와 가화천 일대에서는 북과 핑경을 이용하여 부르는 지역이 나타났다. 건설부 국립지리원(1985)이 농업지역으로 구분한 문화권에서 준평야 및 평야 지대에 속한다. 쟁쇠는 부·울·경 지역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악기이며, 남강 일대가 문화 중심지이다. 이는 낙동강 유역과 그 지류의 하계망과 충적 평야를 통해 다수의 지역들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안의 과거 뱃길을 통해 도서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 유형별 문화지역은 북부평야지역, 서부산지지역, 동부산간 및 해안지역, 중부 및 남부해안지역 총 4개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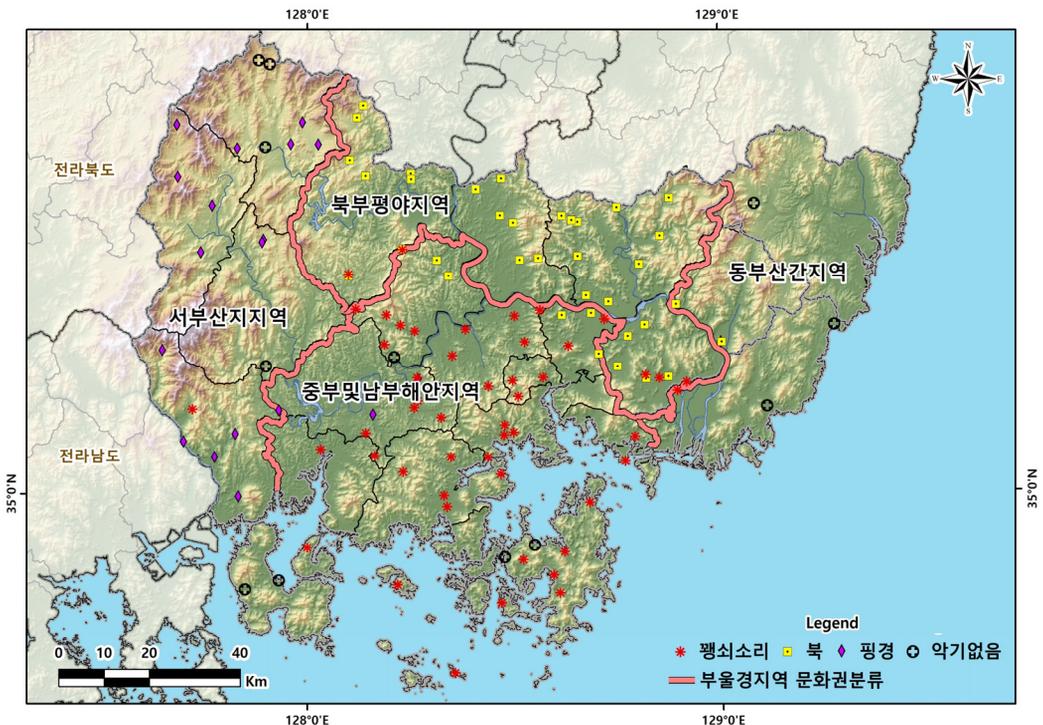


그림 7.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별 문화권 분류 공간분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평야지역은 북을 사용하여 부르는 문화가 우점하고 있는 지역이며, 서부산지지역은 핑경을 사용하여 상부소리를 부르는 문화지역이다. 다음으로 동부산지지역은 악기 없이 불리는 상부소리 문화권이고 중부 및 남부해안지역은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팽쇠를 사용하여 부르는 문화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형요소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전파되거나 문화 전파가 막혀 해당 문화권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상부소리는 하나의 문화요소로서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 구분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부소리의 지역적 특색과 지리적 요소에 따른 전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부소리 악기 유형별 공간분포 분석에 사용된 악기 유형은 팽쇠, 북, 핑경, 악기 없음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각 유형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팽쇠를 치며 부르는 지역은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등 주로 낙동강 서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강 일대에 분포한다. 팽쇠는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악기이며, 남강 유역이 문화 중심지로 판단된다. 북을 치며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은 김해시에서 합천군에 이르는 낙동강 일대 경상남도 중북부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북은 상부소리를 부를 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이며, 이들 문화는 경상남도 내에서 낙동강 중하류 우안지역인 밀양시와 창녕군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충적평야를 따라 양산시와 김해시, 창원시 일대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핑경을 부르며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은 부·울·경 지역 북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지의 비율이 높아 소리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고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악기 없이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은 특별한 분포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해안지역 및 북부 및 중부 산악지대에서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 유형별 문화지역을 구분한 결과, 북부평야지역은 상부소리에 북을 주로 치는 지역이 다수 분포한다. 북부 평야지역은 주로

낙동강과 그 지류인 황강 유역의 연속된 평야지역을 따라 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농업문화가 상부소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서부산지지역은 선행연구의 문화지역 구분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대부분 산지곡저평야나 이주민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전파된 핑경을 사용하여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이 분포한다. 동부산간 및 해안지역은 악기 없이 상부소리를 부르는 지역이 분포하며,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지형적 전파 방해요소에 따라 북을 사용하여 부르는 지역이 일부분 나타났다. 중부 및 남부해안지역에는 팽쇠를 치며 부르는 지역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낙동강 일대와 가화천 일대에서는 하계망과 충적 평야, 해안의 뱃길 등을 통하여 전파된 북과 핑경을 이용하여 부르는 지역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악기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은 기존 문화지역 경계와 유사한 공간 분포 패턴이 나타났다. 하지만, 악기 없이 불리는 상부소리 문화권은 지역의 개수가 타 문화권에 비해 적어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불어, 구축된 모든 상부소리에 악기 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다 다양한 공간 분포양상을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문화지역 구분에서 활용된 시·군 단위의 규모는 상부소리 문화의 중심지 파악이나 전파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소리 및 악기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자체 단위의 행정 경계가 아닌 유역 수계 또는 산맥 등의 지형을 고려하여 소리 문화권을 설정한다면, 상부소리 연구에 있어 지리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한국지자: 지방편 III」, 서울: 건설부 국립지리원
- 경기문화재단 2017, 「제27호 양주 상여 회다지 소리; 경기도무형문화재」,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 김승은·장윤희 2023,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여소리 연구 - 강동구 바위절마를 호상놀이와 고양 상여·회다지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국악학회 학술대회, 22-55.
- 김정수·장동호 2021,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

- 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0(2), 219-236.
- 김정호·문범두, 2013, “남해군의 장례문화와 상여소리 연구” 배달말, 52, 75-103.
- 윤혜연·임은진·박현수, 2020,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문화권 구분에 관한 연구,” 경관과 지리, 30(2), 186-200.
- 이기태, 2010, “道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동계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519-558.
- 이옥희, 2020, “전승주체에 따른 상여소리의 전승맥락과 지속가능성 -광주광역시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58, 139-171.
- 이해식, 2005, “논문한국의 상여소리 연구” 낭만음악, 17(2), 55-102.
- 임미선, 2012, “전라북도 장례요의 유형과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학, 36, 361-417.
- 장동호·이소라, 2015, “충청남도 논매기소리의 지리적 공간 분포 특성 분석,” 경관과 지리, 25(3), 1-14.
- 장동호·임은진, 2022,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 분포 특성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11(2), 237-252.
- 전라남도지도편찬위원회, 1995, 「전라남도지. 제21-25권」, 전남: 전라남도
- 정근비·임은진·장동호, 2023,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에 따른 문화지역 구분” 한국지리학회지, 12(2), 371-384.
- Hanser, W.E., Mark, R.E., and Vingerhoet, A.J.J.M., 2023, A comparison of music characteristics of funeral music from Croatia,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Psihologijske teme*, 32(1), 209-226.
- Prelovsek, A., 2021, The influence of the mediterranean on funeral ceremonies and funeral music in Slovenian Coastal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Euro-Mediterranean Studies*, 14(2), 39-6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교신 : 장동호,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gisrs@kongju.ac.kr)
- Correspondence: Dong-Ho Jang,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gisrs@kongju.ac.kr)
- 투고접수일: 2024년 5월 25일
심사완료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3일